

상무대 품은 장성군, 육군사관학교 유치전 뛰어들었다

유두석 장성군수 ‘육사 유치’ 20대 대선 공약 정식 제안
상무대 연계 통한 미래 국방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도움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를 품은 장성군이 육군사관학교(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어 주목된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유두석 군수는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하면 상무대와 연계한 효과적인 군사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46년 서울시 노원구 일대에 들어선 육군사관학교는 초급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4년제 군사학교다. 부지면적 213만㎡(65만평)에 각종 기조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 학생수는 1300여명 규모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 소유인 서울 태릉골프장

개발과 육사 부지 이전이 거론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경기, 충남, 강원, 경북 등지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성군은 지난해 8월부터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비해 유치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5일에는 이전 추진안을 대통령 선거 대비 정책과제로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유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공약에 ‘육군사관학교 장성군 이전’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장성군의 육사 유치 도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무대와외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성군에 위치한 상무대는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이다.

상무대는 1024만㎡(309만평) 규모에 5개 병과 학교와 2개 지원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생 3만 3000여명이 병과별 훈련을 한다.

장성군은 지역에 육사가 들어서면 양 군사교육 기관 간 원활한 교류와 상호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세 수입 증가, 인구 유입 유발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은 조만간 육사 유치 전담(TF)팀을 꾸리고, 대정부 건의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유 군수는 “육군사관학교의 장성 이전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상무대와 긴밀하게 연계할 경우 미래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삼서면에 자리한 육군 최대 군사교육훈련시설인 ‘상무대’ 정문 전경.

〈장성군 제공〉

목포 유달경기장 936억 낙찰…감정가 281억의 3배 넘어

대양동 종합경기장 신축 탄력

목포 유달경기장이 최고가 936억원에 매각됐다. 이는 감정가 281억원보다 무려 3배를 웃도는 액수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유달경기장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 결과, 서울에 연고를 둔 중견시행업체 A사가 최고가 936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당초 감정가 281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목포시는 지난 1987년 9월 준공된 유달경기장이 낡고 공인규격에 맞지 않아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 대회를 치를 수 없어 매각을 결정했다.

오는 2023년 제103회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유달경기장을 매각해 얻은 비용으로 대양동에 종합경기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다.

목포시는 종합경기장 신축 비용으로 490억원 정도를 예측했다.

유달경기장 매각이 당초 감정가 281억원의 3배가 넘는 936억원에 낙찰되면서 신축 경기장 건립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매각 대상은 전체 토지 6만4703㎡ 중 4만3180



목포시민의 추억이 깃든 유달경기장이 최근 매각 입찰에서 서울 중견 시행업체에 최고가 936억원에 낙찰됐다.

〈목포시 제공〉

㎡와 건물 5833㎡, 가설 건축물 828㎡, 조명탑·전광판·태양광·장애인 리프트시설 등이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목포시는 앞서 자연녹지인 유달경기장 부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 등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번에 매각에서 제외된 2만1523㎡ 부지는 입암천의 녹지공간과 연계해 웰빙공원 및 보행로 등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조성된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나주시, 4일간 39차례 결행 나주교통에 2750만원 과징금

전수조사 후 지원금 환수 등 조치

나주시는 상습적인 불법 회차, 노선 결행 등 불법 운행 논란을 빚은 나주교통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나주시는 최근 일부 노선에 대해 운행조사를 한 결과, 4일 간 총 39차례 결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했다.

결행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노선 당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나주시는 버스업체에 손실보전금(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송원가제가 도입된 2017년부터 지원액이 급증했다.

2016년 84억원이었던 보전금은 이듬해 118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8년 156억원, 2019년 166억원, 지난해 171억원을 지원했다.

보전금 급증은 운송원가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중이 커지고 혁신도시, 남평 강변도시 등 운행지역 확대, 버스 증차 등이 원인이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나주시는 짧은 기간 조사에서 수습차레 위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운행실태를 버스정보시스템과 정밀 대조하는 등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 손실보전금이 적정한 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노선 결행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독점 업체인 나주교통은 차량 155대가 52개 주요 간선노선을 운행 중이며 임직원들은 350여 명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사회단체 “여수산단 기업, 환경 개선·사회적 책임 다해야”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에게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리”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 불법 행위가 들쭉날쭉 2년이 지났다”며 “이후 전남도가 주관하고 민간·관계기관·전문가·시민의원 등이 참여해 논의해온 ‘여수산단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어 “전남도, 환경부, 여수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권을 강력하게 집행하라”며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지역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여수산단환경협의회는 최근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제안한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오염 실태조사,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 악화조사를 위한 용역비 53억3000만원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기업들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농악 외길 70년 김용현 상쇠, 구례군민의 상 선정

구례잔수농악 12채 가락 복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여

일평생을 농악인으로 살아온 90대의 상쇠가 구례군민의 상을 받았다.

구례군은 최근 ‘2021년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례잔수농악 상쇠 김용현(93·사진)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상쇠는 1940년대에 구례잔수농악을 전수받은 뒤 좌도농악 12채 가락을 처음 밝혀 구례잔수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어 구례잔수농악보존회를 설립했으며 93세의 고령에도 꾸준히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쓰는 등 구례잔수농악의 전승보존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출생한 김 상쇠는 20세에 마을농악 체제로 활동을 시작해 농악명인 서학현 선생과 그 뒤를 이은 상쇠 이성욱 선생으로



부터 구례잔수농악을 전수받았다. 27세에 잔수마을 농악 위친계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마을굿을 본격적으로 전승했다. 2006년 구례잔수농악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구례읍 신촌마을 주민 40여 명을 모아 구례잔수농악보존회를 설립했다.

두동갱이, 도리뱅뱅, 중중모리 등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가락을 가지고 있는 좌도농악 12채 가락을 처음으로 밝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잔수농악과 구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